

이상혁 “바르심처럼 2m40 계속 도전할 것”

세계적 점퍼들의 상징적인 기록... 높이뛰기 역대 11명 만 넘어 이상혁 “2m40 먼저 넘는 점퍼가 3~5년간 높이뛰기 지배할 것”

‘현역 최고 점퍼’ 무타즈 예사 바르심(32·카타르)은 최근 “나는 아직 2m40을 넘을 수 있다고 믿는다. 올해 목표도 2m40”이라고 밝혔다.

바르심의 라이벌 이상혁(27·용인시청)에게 바르심의 2m40 재도전은 좋은 자극제다.

지난 2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공개 훈련을 한 이상혁은 “2m40을 먼저 뛰는 사람이 향후 3~5년 동안 육상 남자 높이뛰기를 지배할 것”이라며 “2m40이 분명히 높은 목표이지만, 자주 2m40으로 바를 높이고 훈련하니 아주 높게만 보이지는 않는다”고 2m40 도약을 향한 열망을 드러냈다.

역대 남자 높이뛰기 선수 중 2m40 이상을 넘어본 점퍼는 총 11명이다.

‘전설’ 하비에르 소토마요르(쿠바)가 2m45의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바르심이 현역 최고이자 역대 2위인 2m43을 넘었다.

바르심은 무려 11번이나 2m40 이상을 넘어, 이 부문 최다 기록을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 7월 2일 헝가리 그랑프리 대회에서 바르심이 2m40을 기록한 뒤에는 누구도 2m40 이상을 넘지 못했다.

2019년 이후 남자 높이뛰기 최고 기록은 2m37이다.

2019년 도하 세계선수권(바르심), 2021년에 열린 2020 도쿄 올림픽(바르심·장마르크 탬베리 공동 우승), 2023년 유진 세계선수권(바르심) 1위 기록도 2m37이었다.

이달 19일에 개막하는 2023 부다페스트 세계선수권에서도 2m37이 ‘챔피언을 가릴 높이’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세계적인 점퍼들은 ‘상징적인 기록’ 2m40에 도전한다.

실의 2m35, 실내 2m36의 개인 최고이자 한국 기록을 보유하고, 한국 육상 최초로 세계실내선수권 우승(2m34), 실외 세계선수권 2위(2m35)에 오른 이상혁도 여러 차례 “2m40을 넘고 싶다”고 말했다.

애초 이상혁의 인생 목표는 자신의 키(188cm)보다 50cm 높은 2m38이었다. 이상혁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아이디도 ‘woo_238’이다.

이상혁은 도쿄 올림픽(2m35로 4위)에서 2m39에 도전한 뒤에 목표를 2m40으로 상향 조정했다.

도쿄 올림픽 이후 세계 최정상급 점퍼로 활약하면서, 자신감도 커졌다.

이상혁은 “실패하더라도 계속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 2m36을 넘어, 2m37, 2m38을 바라보고, 2m40까지 도전하고 싶다”며 “훈련할 때 2m40으로 바를 높이면서, 2m40에 대한 두려움도 줄었다”고 했다.

‘전성기’에 진입한 뒤부터 주유 국제대회가 연이어 열리는 것도 이상혁에게 동기부여가 됐다.

2021년 도쿄 올림픽, 2022년 유진 세계선수권을 치른 이상혁은 올해 세계선수권,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한다.

2024년에는 파리 올림픽이 열리고, 2025년 도쿄 세계선수권,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이 이어진다.

이상혁은 “나는 정말 운이 좋다”며 “로스앤젤레스 올림픽까지는 될 생각이다. 한국 육상 최초의 기록을 계속 쓰고 싶다”고 의욕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이상혁이 지난 2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출전을 앞두고 훈련하고 있다. 이상혁은 19일 개막하는 2023 부다페스트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4일 유럽으로 떠나 ‘현지 적응 훈련’에 나선다. /연합뉴스

흔들리는 LIV 골프 대회 운영 최고책임자 사임 PGA와 합병 가능성 속 주목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가 돈을 대는 LIV 골프의 대회 운영 최고책임자가 돌연 자리에서 물러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LIV 골프는 그동안 대회 운영을 총괄하던 론 크로스가 그만뒀다고 3일 밝혔다.

크로스 역시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에 “LIV 골프를 출범시키는 데 한 몫 할 기회를 얻은 걸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사임을 확인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사무국 대회 운영 담당 임원을 거쳐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 임원으로 일했던 크로스는 2021년 11월 LIV 골프에 합류, 작년 6월 첫 대회를 치른 LIV 골프의 운영을 맡아왔다.

PGA투어에서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투어 챔피언십, 그리고 프레지던트스컵 등 간판급 대회 운영을 맡았고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는 라틴 아메리카 아마추어 챔피언십과 아시아 피시픽 아마추어 챔피언십 등을 치렀다.

그는 작년과 올해 LIV 골프 시즌 일정을 잔주역이며 최근에는 2024년 일정을 계획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크로스의 갑작스러운 사임에는 최근 PGA 투어와 PIF가 손을 잡고 PGA투어와 LIV 골프의 합병을 포함한 새로운 판을 짜게 된 사실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PGA투어와 협상 과정에서 LIV 골프의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LIV 골프를 이끄는 그렉 노먼은 내년에도 LIV 골프가 열린다고 밝혔지만, 협상 결과에 따라 LIV 골프는 사라지거나 PGA투어 대회의 일부로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박상원 ‘금 찌르기’ 박상원(왼쪽)이 지난 2일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린 제31회 청두하계유니버시아드 펜싱 사브르 남자 개인 결승전에서 게르그 호르바트(헝가리)와 경기하고 있다. 박상원이 승리하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연합뉴스

PO 노리는 이경훈 “욕심 덜 내고 플레이할 것”

PGA 원팀 챔피언십 오늘 개막 공동 6위 내 들어야 자력 진출

이경훈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 티켓을 향해 힘껏 손을 뻗었다.

이경훈은 4일부터 나흘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즈버러의 세지필드 컨트리클럽(파70·7131야드)에서 열리는 PGA 투어 원팀 챔피언십

(총상금 760만 달러)에 출전한다.

정규시즌 최종전이 이 대회가 끝나면 페덱스컵 순위 70위 이내 선수들만이 플레이오프에 오르게 된다. 현재 73위인 이경훈은 3일 PGA와 인터뷰에서 “사바이벌 게임처럼 이변에 못 하면 탈락하는 느낌이라 좀 더 긴장되긴 한다”면서도 “욕심을 덜 내고 내 플레이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코스가 매우 좁아서 티샷을 중점적으로 연습하고 있다. 기회가 왔을 때 버디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퍼트도 연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훈은 자력으로 페덱스컵 70위 이내에 들기 위해선 이번 대회에서 2명의 공동 6위 안에 들어야 한다.

경쟁자들의 성적이 안 좋을 경우 2명의 공동 30위에 자리해도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다.

이경훈은 지난해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에 극적으로 진출했던 경험을 곱씹었다.

재작년 31위로 간발의 차로 탈락했던 이경훈은 이듬해 플레이오프 2차전인 BMW 챔피언십에서 페덱스컵 순위를 33위에서 26위로 끌어올려 데뷔 후 처음으로 투어 챔피언십 무대를 밟았다. /연합뉴스

IOC 선수위원 한국 대표 ‘4파전’

‘배구 여제’ 김연경도 출마...박인비·이대훈·진종오와 경쟁

한국 스포츠를 빛낸 김연경(35·사진), 박인비(35), 이대훈(31), 진종오(44)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출마를 위해 첫걸음을 내디딘다.

최근 대한체육회는 산하 단체 등에 ‘2024 파리 하계올림픽 IOC 선수위원 후보자 추천 안내’ 공문을 보냈다. ‘IOC 선수위원 한국 대표’를 뽑는 절차다.

배구 김연경, 골프 박인비, 태권도 이대훈, 사격 진종오는 각 종목 협회나 소속팀을 통해 대한체육회에 추천 공문에 회신했거나, 회신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4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 추천을 마감하고, 선수위원회의 내부 검토 등 절차를 거쳐 ‘한국 후보 1명’을 확정한다.

각국 국가올림픽위원회(NOC)는 9월1일까지 IOC에 ‘후보 1명’을 추천해야 한다.

내년 7월에 개막하는 2024 파리 올림픽 기간에 ‘선수 투표’로 IOC 선수위원을 선출한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뽑는 IOC 선수위원은 총 4명으로, 4명은 모두 다른 종목 선수여야 한다.

역대 한국 출신 IOC 선수위원은 총 2명이다.

2004 아테네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 문대성이 2008년 처음으로 선출됐고, 유승민 대한탁구협회장이 2016년에 선출돼 ‘8년 임기’를 소화하고 있다.

IOC 선수위원은 동·하계올림픽 개최지 투표 등 IOC 위원과 똑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한국 스포츠 외교에도 큰 힘을 실을 수 있다.

아직 후보 추천을 마감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IOC 선수위원 후보 경쟁은 4파전으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4명 모두 한국 스포츠사에 남을 레전드다.

김연경은 2012년 런던, 2021년에 열린 2022 도쿄 올림픽에서 한국 여자 배구를 4강으로 이끌었다. 국기대항전은 물론이고, 튀르키예 리그 등에서 뛰면서 ‘세계 여자배구 역대 최고 선수’라는 찬사도 들었다.

박인비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메이저대회 7승을 포함해 21승을 거뒀고,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냈다. 4대 메이저대회와 올림픽 금메달을 합친 ‘골든슬램’이라는 화려한 이력서를 썼다.

‘태권도 종주국’ 한국에서 간판선수로 활약한 이대훈은 2012년 런던 은메달, 2016년 리우 동메달 등 올림픽 메달 2개를 획득했고,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차례 우승했다.

진종오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2개 등 6개의 메달을 따내 금메달 4개, 은메달과 동메달 1개씩을 획득한 김수녕(양궁)과 함께 역대 한국인 올림픽 최다 메달 획득 기록을 보유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비공식작전
2관	비공식작전
3관	밀수
4관	엘리멘탈, 인시디어스: 빨간 문
5관	더 문
6관	엘리멘탈, 더 문
9관	밀수, 몬스터 패밀리 2, 명탐정코난: 흑철의 어영

7관 싸여들: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인시디어스: 빨간 문, 여름날 우리

8관 싸여들: 밀수,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인시디어스: 빨간 문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기획공연 포시즌 미디어아트 뮤지컬 **파랑새**

일시: 2023-08-24(목)-25(금) 19:3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062-613-8235

GAC 재개관 시리즈 - 포시즌 때 '정트리오 콘서트'

일시: 2023-08-26(토) 17:0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062-613-8235